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5월 21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18장 1-5절

설교제목 :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교회의 미래는 다음세대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구절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5-6절입니다. 주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마18:5) 어린 아이를 자신의 위치까지 끌어올리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마18:6) 연자 맷돌은 소가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레위기 말씀의 1차적 대상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압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은 더러운 관습과 잘못된 규례가 녹아져 있고, 그것이 문화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규례도 따르거나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레18:3-4) 교회가 앞으로 직면한 세상은 너무나도 급격한 변화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세상은 가나안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담의 범죄 아래서 항상 이그러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구별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규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달하신 모든 지시 사항 및 명령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법치입니다. 이스라엘이란 공동체를 세우실 때, 그 기초가 법치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시대가 패역하고 신앙이 세속화될 때마다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었습니다. 가나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8장에 서술된 내용이 대개 음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기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레18:5) ‘살다’로 번역된 하야는 단순히 ‘살다’, ‘거주하다’는 뜻을 지니는 야와브 동사와 달리 생명을 가지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2-3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날을 장구하게 하고,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복을 받고’를 직역하면, ‘모든 일이 기쁨이 되고’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그 가르침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참된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중심에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성경의 유익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딤후

후3:16) 교훈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책망은 어디에서 길을 벗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르게 함은 바른 길로 돌아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의로 교육함은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걷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성경은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고 합니다.**(잠22:6)** 성경은 교육의 조기교육을 강조합니다. 어렸을 때 말씀은 스폰지에 물이 흡수되듯이 입력이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1-12세 사이에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암송시키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욱 조기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의 영향이 나이가 들어서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세대 교육의 핵심은 일찍부터 바른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주체가 부모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가르치길 원하십니다.**(신6:1-2)** 이 명령을 부모가 자녀들을 제자화하는 수직적 제제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두 가지인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수평적 지상명령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제자화하는 수직적 지상명령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크리스찬 부모는 자녀들에게 육적생명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제자화시켜야 하는 지상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부족함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수평적 제자화는 강조되었는데, 부모가 자녀들을 제자화하는 세대간의 제자화, 즉 수직적 제자화를 소홀히 여겼다는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직적 제자화는 부모 즉 가정에서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수직적 교육은 3대 교육입니다. 2절을 보시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자이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다음 세대들의 신앙적 책임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와 부모란 히브리어 단어가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최고의 교사입니다. 이것이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본문의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의 미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제자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지도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림없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미래가 다음 세대임을 기억합니다. 다음 세대의 온전한 회복과 부흥을 소원해 봅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신 수직적 지상명령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하나님께서 다음세대의 제자화의 일차적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